



# 자전거도 지하철 탈 수 있다!

##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지하철 자전거 휴대 탑승 시범 운영

### 일요일, 공휴일에 우선 실시...시청역 등 38개 역에 자전거 반입 위한 경사로 설치

서울시내에 자전거 도로가 늘고 자전거 출·퇴근이 활성화되면서 지하철을 이용할 때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4일(일)부터 내년 4월까지 7개월 동안 지하철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탑승하는 것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은 출·퇴근 시 혼잡을 고려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에 우선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전거를 역 내부로 반입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고, 자전거 및 헬멧이 이송할 수 있는 전용 개입표기도 설치하는 등 자전거를 가지고 이동

하는데 편리하도록 지하철 내부와 역사 등을 개선한다.

경사로는 일반 승객의 동선 등 역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1개 역에 1개 동선씩 계단의 양 방향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을 위해 시청역 등 38개역에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2010년 4월까지 설치가 가능한 모든 역에 확대 설치한다.

경사로 및 자전거 시설물이 우선 설치되는 역은 1호선 시청, 종로3가, 동대문역, 2호선 을지로입구, 한양대, 건대입구, 성내, 신전, 교대, 당산역을 비롯해 3호선 구파발, 옥수, 압구정, 매봉, 수서역, 4호선 노원, 길음, 한성대, 동작, 사당역 등이다.

또 5호선 광나루, 오목고, 여의도, 광화문, 올림픽공원역, 6호선 월드컵경기장, 새절, 고려대, 석계, 화랑대역, 7호선 노원, 중화, 뚝섬유원지, 내방, 운수역, 8호선 풍촌토성, 석촌, 송파역에도 자전거 시설물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전동차도 자전거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한다. 전동차의 맨 앞쪽과 뒤쪽 등 편성당 2량의 전동차가 자전거 탑재 차량으로 지정되며, 자전거 고정용 거치대를 설치한다. 오는 10월까지 40편성, 내년 4월까지 359편성이 개조된다.

**시범운영 결과 분석하여 토요일과 평일까지 단계적 확대**

이와 함께 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밀폐형(사물함형) 자전거 보관 시설을 역사 내에 추가 설치한다. 밀폐형 자전거 보관 시설은

현재 석계역에 시범 설치되어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종합운동장역 등 8개 역에 추가 설치한다.

서울시는 내년 4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내년 5월에는 토요일까지, 2012년 이후에는 평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단, 평일에는 출퇴근 시간대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혼잡 시간대의 자전거 휴대 탑승을 제한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 처음으로 도심 지하철에서의 자전거 휴대 탑승은 전국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지하철 탑승 시에는 자전거 이용자 스스로 이용수칙을 준수하여 지하철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효정

# 한국 의료법, 무자격 안마사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근 많은 중국 동포들이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발마사지업소 등에서 안마를 하고 있으나 한국의 의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의료법 제82조에 의하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서 ①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②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안마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안마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자 만이 안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국에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의학 학원에서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병원에서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짧은 기간 내에 누구든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시각장애인만 안마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입국한 중국인 안마사들이 주로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발마사지업소 등에서 중얼업으로 일하거나 일부 코너를 임대하여 안마 시술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한국의 법에 의하여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시각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자 안마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며, 안마 행위의 특성상 성매매 또는 유사 성행위 등 2차적인 범죄로 연계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경찰에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

자격이 없는 자의 안마행위는 무자격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제87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한국의 법을 알지 못해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산경찰서 이길수 경사

# 재한 중국동포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다

편집자 주: 가끔 신문에 문의해 오는 "중국에 가지 않고도 한국에서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가?" 하는 재한 중국동포들을 위해 서울가정법원 가정법률상담소에 문의하여 그 해답을 기재한다.

재한 중국인 부부가 중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이혼 수속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자주 받고 있다. 재한 중국동포를 위하여 아래 절차와 방법을 소개한다.

**부부가 한국 체류중(장기체류)인 경우 한국에서 해야 할 서류**

1. 부부가 직접 작성한 친필 이혼

합의서(공증서)

2. 결혼증 원본/사본 지참,
3. 여권/신분증/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4. 외국인등록증

위 1-4서류 지참하여 주한 중국 영사관에서 인증서 발급.(부부가 반드시 출석)

위 1-4서류와 주한영사관의 인증확인서를 발급받아 분국 주소지 관할 법원(민정국)에 보내주면 된다.

**부부의 일방이 장기체류중 혹은 중국거주일 경우**

재한 일방이 한국에서 위임장공증하여 그 위임장을 주한 영사관에 인증 확인을 받아, 중국에 상대방에게 보내주면 된다.

**주의점:** 합의이혼일 경우 반드시 자녀의 양육권과 부양관계, 그리고 재산문제가 합의되어야 한다.

위내용이 없을 경우 중국 법원이나 민정국에서 이혼신청 접수가 되지 않는다.

위임시 수탁인의 자격은: 본인의 친족(부모/형제/자매 4촌이내 할족이아함)

/한민족신문 법률자문팀

# 재외동포 전용펀드 설치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대한 조세 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특례법에 따라 이 펀드에 투자한 재외동포에게는 한화로 1억원까지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며 1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5% 저세율로 분리과세가 된다.

2010년말까지 재외동포 전용펀

드에 가입한 수익자가 2012년 말까지 분배받는 배당소득이 세계 최대이다. 다만 단순 환차익만을 노린 단기투자를 배제하기 위해 가입일로부터 1년내 환매시에는 세계대역폭이 배제된다고 한다.

재외동포 전용펀드가 입요건에

는 비거주자인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 동포,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영주권을 갖고 외국에 거주한 자와 외국국적소를 보유하고거나 부모나 조부모가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 사람들

이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재외동포 전용펀드 가입자가운데 재일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대할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 회의적인 반응이 많은 상태라고 한다.

# 중국동포 귀화 허가요건 상반된 판결 받아

## "취업 불가능한 체류기간" 거주 인정 대 불인정

# "인터넷뱅킹 아무데서나 못한다"

은행들이 미리 고객이 정해놓은 PC에서만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게 하는 '뱅킹이용 PC 사전등록제'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불편함을 다소 감수하더라도 보안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인터넷뱅킹 사용자가 미리 지정해둔 PC(개인 최대 10곳)에서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킹 등을 통해 얻은 다른 사람의 정보로 인터넷뱅킹에 불법 로그인한 뒤 돈을 빼가는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인터넷 뱅킹 이용자 A씨가 집과 직장 PC, 개인 노트북 등 3곳에서만 인터넷뱅킹을 하겠다고 은행에 신청하면, 신청한 3대의 PC를 제외한 다른 PC로는 A씨의 인터넷뱅킹 계좌로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은

행이 미리 신청한 PC 3대의 랜카드 고유번호(맥 어드레스)를 등록한 뒤 다른 PC에서 인터넷뱅킹을 시도하면 바로 차단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공인인증서를 담아두고 PC방 등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일이 많은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에서 개인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뱅킹 PC 사전등록제는 신청자에게만 해당된다.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이전처럼 모든 PC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신한은행이 지난달 초 은행권 최초로 도입한 이후 확산 분위기다. 신한은행은 등록되지 않은 PC에서 인터넷뱅킹이 시도되

면 해당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인에게 통보한다. 중국 등 해외 주소(IP)에서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사실을 개인에게 알려주기도 한다.

하나은행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PC 수를 개인마다 3곳 정도로 제한하는 PC 사전등록제를 곧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은행도 비슷한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한 보안담당자는 "IP 주소를 체크하는 방법은 최근까지 보안 방법으로 쓰였지만 위조 및 변조가 쉬워 이전 사실상의 의미가 퇴색했다."면서 "이 때문에 은행들이 서둘러 새 보안 방식으로 PC 등록 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관리과 제공

취업을 할 수 없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한국에서 머문 기간을 귀화 허가를 위해 채워야 하는 체류기간에서 제외된 은 법무부의 관행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잇달린 판결을 내놓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중국동포 홍모(48)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취득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홍씨는 2004년 8월 30일부터 (F-1-4) 등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한국에 머물러 왔다.

부모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는 홍씨는 "간이귀화" 대상자였다. 국적법은 아버

지나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은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홍씨의 취업 체류자격 유효기간이 도중에 종료돼 체류기간 3년을 불과 27일 남겨 놓은 2007년 8월3일 기타(G-1) 체류자격을 받게 됐다. 기타 체류자격은 소송이나 질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외국인에게 임시 체류를 허가하는 취지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이다.

홍씨는 기타 체류자격으로 3년을 마저 채운 뒤 지난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잠정적인 체류자격인 기타 체

류자격으로 머문 것은 3년 동안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불허하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적법은 간이귀화 허가에 있어 특정한 종류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체류할 자격을 부여받기만 하면 종류와 상관없이 그 기간도 3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홍씨의 손을 들어 줬다.

앞서 지난 5월 행정3부(부장 김종필) 역시 중국동포 박모(47)씨가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체류자격 종류에 상관없이 생활근거지로서의 주소를 취득해 거주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런데 곧이어 지난 6월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중국동포들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 2건에서 "기타 체류자격으로는 취업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한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고 해도 그 기간 확고한 생활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수 없어 국적법상 일정한 거주 요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반대로 법무부의 손을 들어 줬다.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부별로 2대2로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양쪽 모두 불복해 현재 사건은 모두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상급심의 판단에 따라 국적법 귀화요건이 개정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제공

다 읽고난 신문은 버리지 마시고 주위분들과 나누어 봅시다. 광고 구독문의 : 02-2676-6866 H.P : 010-6866-0815

## 代办电脑入网申请手续

好消息: 本服务中心为在韩中国人提供如下服务:

1. 代办电脑入网申请手续, 无电脑者也可申请
2. 代办网络电话申请手续
3. 代选新电脑或二手电脑及移动硬盘

欢迎在韩中国朋友广为利用

電話: 02-2676-6866, 2637-0814 H.P: 010-6866-0815

## 本報法律服務中心專門商談

中国人的工伤, 产灾, 拖欠工资等问题

本報法律服務中心為中國人專門商談和解決工傷, 產災, 拖欠工資, 死亡, 交通事故, 國際婚姻者的出入境管理所的一切手續和結婚手續以及國籍整理等問題.

商談電話: 02-2637-0814, 02-2676-6866  
傳真號碼: 02-2676-6866  
電子郵箱: xinwen77@naver.com  
地址: 地鐵 2 號線, 5 號線永登浦區政府站 5 號出口前 15 米處.

## 中国驾驶证换发韩国驾驶证

持有中国驾驶证的合法居住者, 只考笔答考试既可获取韩国驾驶证.

代办中国的公证, 认证, 领事馆确认手续.

02-2637-0814  
02-2676-6866

# 교과부 재외동포교육 예산 '2배로' 늘이기로

## 당정, 803억원으로 증액 합의... 민주, 재외국민교육지원법 발의

정부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초 국회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고, 교과부의 재외동포 교육 지원비를 올해 400억원에서 내년도 803억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아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도 재외동포 교육 예산이 두 배로 늘 어날 전망이다.

증액된 예산은 재외 한국학교 설립·운영 및 교사 인건비, 한국교육원 지원비, 한국어반 증설비, 한국어교재 제작비 등으로 사용될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

신강택 과장은 7일 "그동안 재외 한국학교를 비롯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고 이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비 증액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어가 미국 AP(advanced placement) 과정에 편성되기 위해서 미 정규학교에 한국어반이 증설돼야 한다는 동포들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이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는 한글학교에 대한 교재개발도 일부 증액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재외동포예산

이 증액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월 재외동포 참정권이 부여되면서, 정부가 재외동포 교육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정치권 내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욱 높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이 지원 결정 직후 "재외동포에 대한 참정권도 허용했는데 재외 한국인을 위한 학교 지원 수준이 너무 열악하다"고 밝힌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교과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앞서 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달 24일 국회에 '재외국민 교

육지원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교과위 소속 위원들은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한국학교, 한글학교 및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재외국민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 한국학교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고 개정안에 명시하고 있다.

/이석호

# 중국 목단강시에서 조선족 장수로인들께 축수상을



목단강(牡丹江)시 서안구정부는 조선족민속광장에서 21쌍 70세이상 조선족노인부부에게 "장수로인 축수상"을 차려주었다고 일전 목단강시 서안구의 장명원구장은 "조선족은 노인을 존중하는 미풍양속을 갖고 있는 우수한 민족"이라면서 목단강시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조선족 로선배들의 업적을 높이 기리기 위해 이번 축수연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목단강시조선족노인협회 회원들과 장수로인 가족들은 축수상을 받은 노인들에게 꽃다발과 축배를 올리고 건강장수를 기원하는 큰잔치를 열었다.

행사는 "오래오래 앉으세요"란 벨로디로 시작되어 정성껏 준비한 춤과 노래,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문예종목을 선보여 장수노인들과 축객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

으며 모두가 함께 어울려 춤추고 노래하는 것으로 고조를 이루었다.

이날 축수상을 받은 안병균노인은 성대한 축수연을 마련한 목단강시와 서안구정부, 목단강시조선족노인협회에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사회가 좋고 자식들의 효도가 있기에 오늘과 같은 날을 맞게 되었다"며 앞으로 여생을 바쳐 고향건설에 이바지하겠다고 감동을 토로했다.

/리현

# 재중한인회, 불우아동 돕기 한·중 꽃꽂이 전시회 개최

재중 한국인회는 내달 14~16일, 베이징 주중한국문화원에서 중국 불우아동 돕기를 위한 '제1회 한·중 꽃꽂이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재중한국회가 전했다.

한·중 수교 1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꽃 작품 전시회, 꽃꽂이 시연, 꽃꽂이 대회, 꽃꽂이 체험, 장애아동 돕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전시회관람객들을 위한 꽃꽂이 체험교실도 열린다.

또한 전시회 기간에는 오는 10월 1일, 중국의 건국 60주년을 국경

절을 기념하기 위한 서예작가 특별전과 한·중 플로리스트들의 꽃꽂이 시연도 개최된다.

전시회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중국 불우아동을 돕기 위한 선금으로 사용 될 예정이다.

재중한국인회 정호권 회장은 "한·중 양국의 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민간교류 역시 날이 증 가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 사이의 상호 이해증진과 민간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인회

# 연변 1년내 음주운전 두번이면 운전면허 취소, 2년내 취득 불허

10월 1일, 국경절을 맞아 연변자치주에서는 안전을 보장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추진하기 위해 공안부의 통일적인 지시에 따라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위법행위를 단속활동을 벌인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전 성적으로 다시 한번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변자치주 교통경찰대에서는 8개 현시 교통경찰교진과 민간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된다.

이번에 단속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법》에 좇아 3개월간 운전면허증을 몰수하고 취중상태에서 기동차를 운전한 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면허증을 몰수하게 된다. 그리고 1년 내에 취중운전 차수가 2차인 운전자에 대해서는 모두 면허증을 취소하고 2년 내에 다시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며 5년 내에 영업용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한다.

/길신

# 농민공 산재증명 위해 개흉수술을

직업병으로 인한 산재를 증명하려고 농민공이 가슴을 가르는 개흉수술을 해 사회적이슈가 되고있다.

하남성 신밀시 류체진의 광산노동자 장해초는 3년간 광산에서

근무한후 진폐증을 앓게 됐다.

여러 병원에서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직업병에 의한것이라는 증명자료를 주려하지 않고 직업병방지소는 한술 더 떠 폐결핵으로 진단서를 내놓았다.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보상받을 길이 없자 장해초는 진폐증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정주대학 제1부속병원에서 가슴을 가르

는 수술을 했다. 진폐증이 확인되자 병원은 위생부에 자문을 구했고 이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장해초사건이 이슈가 되자 국가위생부는 전문가들을 하남성으로 파견해 조사에 나섰으며 장해초를 문병하기도 했다. 신밀시위생국 부국장은 이때문에 면직처리됐다. 언론들도 국내에서 산업재해보상의 어려움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신화

# 국제결혼 등 귀화자 10년 전보다 93배 ↑

국제결혼 등으로 한국으로 귀화하는 외국인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 정책블로그 '행복해지는 밤' 8월호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국내 거주자가 10만명이 넘 으면서 귀화자도 10년 전인 1999년 156명에서 93배 늘어난 1만 4522명으로 집계됐다.

귀화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은 국제결혼. 국제결혼은 1990년대 말 신부가 없어 결혼을 하지 못하는 농촌 총각이 증가하자 국내에 전문화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2002년 전후로는 중국,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외국인 신부들이 주로 한국에 왔으나 외국인 및 혼혈인에 대한 시각이 바뀌면서 더욱 늘어났다.

외국인 신부가 귀화시험에 통과, 한국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친정 식구들을 초청할 수 있고 그들도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신부의 증가는

가족들의 한국 정착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이것이 귀화자 증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장기체류 외국인 이 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 12월31일 현재 방문취업동포, 단순노무인력, 결혼 이민자, 유학생, 전문인력, 영주자격자, 투자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은 69만1093명에 달했다.

이들 중 변호사겸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 오슬로대학교 부교수 박노자, 러시아 물리학자 블라디미르 사발리에프, 축구선수의 신의 손, 농구선수 이동준 등은 대표적 고학력 엘리트 혹은 스포츠 스타 귀화자들이다.

법무부는 "한국을 선택하는 외국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 속에서 우리 위상이 크게 올라간 것을 뜻한다"면서 "그들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국서 축구 유학왔어요"

## 울산현대정과고 中 동포학생 이다정



"축구 유학왔어요."

올해의 '사커퀸'을 가리는 국내 최고(最古)의 여자축구 종별대회인 제17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는 경남 함안스포츠타운에 유독 수줍음을 타는 선수가 있다. 울산현대정과고의 2

학년 미드필더 이다정이다. 중국 텐진체육중학교를 다니다 지난 2007년 가을 한국으로 유학온 이력이 독특하다.

중국 하얼빈 태생으로 부모님은 조선족이다. 100m 최고기록이 12초34일 정도로 빠른 발 덕에 단거리 육상선수를 했지만,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하던 축구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중학교 2학년 때 종목을 바꿨다.

하지만 가까운 지역이 고교 축구팀이 없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의 진학은 생각하기 어려워 고민하던 차에 중국 현지에서 자신을 후원해주던 한인후원회의 도움으로 한국 유학의 꿈을 이루게 됐다. 울산현대정과고는 남자 프로팀 울산 현대와 함께 마련된 클럽하우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어 축구를 계속 하고 싶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축구를 하는 것도 쉽지않은 일이었다. 중국 국적이어서 대한축구협회에 선수등록이 안 되는 바람에 지난 한해는 공식대회에 출전할 수 없었다. 한국인 후원자 호적에 이름을 올리고 한국 국적을 따고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신바람나게 국내대회에 출전중이다. 지난 7월 전국여자선수권대회 8강전에서는 함안대산고를 상대로 헤트트릭(3골)도 작성했다.

빠른 발과 함께 가장 큰 장점은 지질 줄 모르는 체력. 울산현대정과고 정연삼 감독은 "쿠퍼 테스트를 하면 남자 프로선수만큼 한다"며 혀를 내두른다. 이다정은 "좋아하는 축구를 계속할 수 있어 행복하다. 언젠가 한국 여자축구 실업팀에서 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중국 6개 위성TV, 대만 수재민에 3억 위안 성금 전달

태풍 '모나팍'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대만의 수재민을 돕기 위해 중국 대륙과 홍콩, 대만 인기 연예인들이 3.1억 위안을 하루만에 중국의 6개 위성TV로 모금해 대만 적십자사에 전달하기로 해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에선 지난 20일 오후에 중국 동광, 장수, 후난, 저장, 선전, 린진 위성방송 등 중국내 6개 방송사가 공동으로 '해협을 가모지르는 애심-대만수재민 돕기' 특별공연을 열고 100여명의 스타들이 출연, 총 3억1000만 위안(600억원)의 성금을 모아 대만 수재민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중국내 위성TV로 이뤄진 대만 수재민 돕기 성금 모금에는 중화권 스타들이 합창, 시낭송 등으로 동포애를 간절히 전하면서 100여개의 성금전화가 설치됐으며, 저우선, 리빙빙, 류웨이, 비비안수 등은 직접 성금전화를 받고 기탁을 안내하기도 했다.

일부 중국 연예인들이 수만 위안의 성금을 아낌없이 전하기도 해 3.1억 위안은 스타들의 성금도 합쳐진 액수로 알려졌다. 한편 대만에서 지난 7일부터 10일 사이에 태풍 '모나팍'으로 사망자 116명, 이재민이 총 1만 7855명이 발생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 新华报社换钱所

# 中国航空售票处



全方位为在韩中国各族同胞提供优质服务

赴中国各地特价飞机票、各类赴韩邀请手续、结婚、离婚及领养手续代办、公证、认证及加快速度、各种法律问题免费商谈、H-2再入境及其它各类入境疑难问题咨询、公伤、产灾、退職金及拖欠工资免费商谈、中国驾照换韩国驾照、提供出差现场翻译、赴韩国留学签证全程代办、人民币与韩币自由兑换且汇率高。

联系电话: 02-866-8188, 02-6083-7379, 010-5628-9779, 010-7773-1688

地址: 首尔市九老区加里峰2洞88-18 地点: 首尔7号地铁南九老站3号出口